

전남도,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270억 투자

산나물·표고·대봉감 명품화 등 31종 사업 추진

내년까지 합평에 '남부권 톱밥 배지센터' 조성

전남도가 산나물, 표고, 대봉감 등 지역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조성에 27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191억원보다 79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도는 19일 "올해 다른 지역보다 비

교 우위에 있는 임산물을 대상으로 단기 소득 임산물의 생산 기반 규모화·현대화, 임산물의 가공·유통구조 개선, 산림 복합 경영단지 조성 등 5개 분야 31종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지역 비교우위 품목인

산나물, 표고, 대봉감 등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조성·잔디 등 생산 장비 및 생산기반 조성 및 표고버섯 등 대규모 생산단지(15개소) 조성 등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0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저급 중국산 톱밥 배지를 대체하고, 톱밥배지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2015년까지 60억원 을 투자해 합평 신광면에 전국 최대 규모의 '남부권 톱밥 배지센터'를 조성한다.

윤병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산나물, 표고버섯 등 지역에서 생산 되는 임산물의 친환경 재배를 확대 하고 인증관리와 임업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 할 수 있는 임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내 5000만원 이상 고 소득을 올리는 임업인은 지난 2008 년 62농가에서 2010년 176농가, 2012년 237농가, 2013년 250농가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84농가가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해남김, 중국 식탁 오른다

해남수협, 중국영기업과 100억 수출계약

해남김이 중국인 식탁에 오른다.

해남군 수협(조합장 김성주)은 최근 중국 지린(吉林)성 장춘시 여화만백화(집단) 유한공사와 연간 100억원 규모의 해남 김 및 수산물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여화만백화 유한공사는 중국 국영기업으로 국내 대형마트 기의 백화점점을 장춘시에만 48 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연간 100억

원 규모의 해남 김이 중국 수출 길에 오른다.

군 수협은 4월중에 5개 컨테이너 규모의 김을 수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2·3차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난다. 계약기간은 향후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게 된다.

김성주 조합장은 "중국 수출 계약으로 해남 김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 된다"고 강조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병충해 강한 흑미 신제품 개발 박차

진도군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함께 고품질 흑미(검정쌀) 품종 육종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도군과 식량과학원은 지난 2009년부터 6년째 병충해에 강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흑미 신품

5년에 걸친 실험결과 이 품종이 줄무늬마름병 피해 예방과 함께 향, 색깔, 맛 등 상품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군과 식량과학원은 올 하반기에 3개 품종 가운데서 우량 품종을 최종 선발한 후 신제품으로

진도군-식량과학원 공동 6년째 연구

3개 품종 실험... 올 하반기 농가 보급

종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2008년 줄무늬마름병으로 인해 흑미 재배면적 1738ha 중 58.7%에 달하는 1020ha에서 많은 피해를 입자 신제품 개발에 나서게 됐다.

군은 지난해 병해충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3개 품종(진도흑미, 진도 흑찰 1호, 진도 흑찰 2호)을 개발, 올해 6ha 면적에서 최종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식 등록해 진도군을 포함한 전국 흑미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중앙부처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중·장기적으로 진도지역을 '유색미 특구'로 지정, 흑미 경쟁력을 키워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1991년부터 전국 최초로 흑미를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5000여 농가가 1708ha에서 흑미를 재배, 전국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전남도 평생교육진흥원 개원

전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19일 오후 전남개발공사 빌딩에서 권오봉 전남도 경제부지사, 장만채 도교육감, 이성운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 이경철 전남발전연구원장, 도의원, 교육부 등 평생교육 분야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 이어 전남도와 도교육청,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 기반 구축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 제공>

발달장애인 공공 후견인제 본격 시행

전남도, 지원 조례 제정 복지혜택 확대

전남도가 그동안 신체 장애인 위주의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지원을 위해 공공 후견인제를 도입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확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아동의 재활 지원서비스를 지난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늘고 있는 만 6세 이하 미등록 장애아동(언어·지적·자폐성 등)의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

진단서비스 지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규 제도들도 확대되고 있다.

발달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우울감 해소를 위한 집중 심리 상담서비스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해 전면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내 18세 이하 발달 장애인은 지난해 말 현재 1993명이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한 공공후견인 지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공공후견인 교육지원기관인

전남도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후견인 발굴·양성에 나섰다.

공공 후견인 지원사업은 기존의 금치산·한정 치산제 폐지에 따라 대체된 제도로 만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의사 결정을 돕는 후견인을 양성, 지원하는 제도다. 전남도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은 9106명이다.

도는 또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구례, 생태관광상품 개발 추진

공동 발전 협약 체결

순천시와 구례군이 지자체간 경계를 허물고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모색한다. 순천시와 구례군은 지난 18일 구례군청 상황실에서 양 지자체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증진 실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순천시와 구례군은 지자체간 경계를 허무는 개방과 공유로 상호 협력 가능한 사업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지리산과 섬진강, 순천만을 연계한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상품 개발

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순천만정원 등 순천시 지역 관광지 5개소를 찾는 구례군민들은 입장료 50% 할인혜택을 받으며, 구례 야생화 압화 전시관과 지리산 가족호텔을 찾는 순천시민 역시 50% 할인혜택을 누리게 된다.

특히 양 시·군 최대 행사인 '구례 산수유꽃 축제'(3월 22~30일)와 '순천만 정원' 개장(4월 20일)을 앞둔 시점에서 협약이 체결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예정열기자 yjy@ /구례=이성구 기자hsg@



'건강한 물 지킴이' 업무 협약

함평수도관리단-여성단체聯

한국 수자원공사(K-water) 함평수도관리단(단장 이범욱)과 함평군 여성단체연합회(회장 정경림)가 손을 잡고 맑은 물 공급과 여권(女權) 신장에 앞장선다.

K-water 함평수도관리단과 군 여성단체연합회는 18일 함평수도관리단에서 '건강한 물 지킴이' 홍보단 창단식과 여성 권의 신장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 협약으로 관리단과 연합회는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유지하고, 행복과 사랑을 나누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물지킴이 홍보단은 다음달부터 관내 상수도 공급지역 수용가를 대상으로 수돗물 품질과 공급장소 수질 측정(간류염소·pH), 수질이상 모니터링 등 응용물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범욱 수도관리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이미지 구축과 지역민과의 유대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여성가족부 인정 2014-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4년 3월 17일(월)~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목에서 1개만 해당된 경우>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현장학습과 함께 하는 「실용도종약초」 수강생 모집

■ 교육일시: 2014년 3월 4일(화) ~ (15주) / 매주 화요일 저녁 7:00 ~ 계속 모집중

■ 강사: 김성희 010-9604-5377

■ 교육내용

- 주변에 자생하는 약초에 대한 생애 및 분류의 이해
- 약초의 성질과 유효성분, 지표성분과의 상관 관계
- 약초 발효액, 발효차, 식초만들기
- 약초의 재배, 재취와 가공 방법
- 현대인의 건강과 healing 도움이 되는 약초

광신대학교 생활한방교육원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출연)

결혼정보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단체직 [광주서초동화교출연, 전주고등학교출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男	초혼	추천회원	女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자녀 여성' 희망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VIP 희망 여성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자영업, 가사
				'무자녀 남성' 희망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70m 하나은행 B/D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민주시 사신동) (063) **275-7766**